

# 페퍼스 팬 반발에도...GS칼텍스전 불공정 게임 지속될 듯

### 페퍼스 "만족스런 계약"...KOVO "두 구단 합의 사항 관여 어려움" 오지영 불출전 속 남은 두 경기 치를 가능성 높아...팬들 연일 성토

광주 AI페퍼스와 GS칼텍스가 팬들의 반발에도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불공정 게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페퍼스 구단 관계자는 25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GS칼텍스와 합의한 오지영 트레이드건은 만족스런 계약"이라면서 "두 구단의 합의로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재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리베로 오지영 트레이드 조건으로 GS칼텍스가

제시한 '오지영을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에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출전 불가 조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페퍼스는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GS칼텍스전에 오지영을 출전시키지 않았다. 페퍼스의 입장대로라면 오지영은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 두 경기도 출전하지 못한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두 구단의 합의사항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OVO 관계자는 "두 팀간의 트레이드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했다"며 "향후 프로배구단들의 계약을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구단의 계약에 대해 현재로서는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팬들은 KOVO 홈페이지에서 페퍼스와 GS칼텍스, KOVO를 연일 성토했고 있다.

결자는 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배구팬 A씨는 "이같은 행태는 팬들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냐"면서 "KOVO도 팬들의 불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비판했

다.

B씨는 "GS칼텍스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이에 동조한 페퍼스는 공범"이라며 "전례를 고착화 시킨다면 악용하지 않을 팀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KOVO는 더 이상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태를 좌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C씨는 "선수가 트레이드되면 원소속 팀이 보유한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박탈되는데 구단끼리 상호합의 했다고 해서 원소속팀이 선수의 출전에 개입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한 뒤 "다른 구단들도 트레이드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자기 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너도나도 써먹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페퍼스와 GS칼텍스는 지난달 26일 오지영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당시 개막 후 16연패에 빠졌던 페퍼저축은행은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고 GS칼텍스에서 뛰던 오지영을 영입했다.

GS칼텍스는 논의 과정에서 "즉시전력인 오지영을 이같이 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오지영을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에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출전 불가 조항 삽입을 요청했고, 페퍼스는 응했다. 두 구단은 오지영 출장 관련 조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KOVO도 오지영 트레이드 당시 GS칼텍스전 출전 불가 조항 삽입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새 '스키 여제' 탄생

### 시프린 월드컵 최다 83승...린지 본 기록 뛰어넘어

미케일라 시프린(28)이 '스키 여제' 린지 본(39·이상 미국)의 기록을 마침내 추월했다.

시프린은 2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크론플라츠에서 열린 2022-2023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대회전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 00초 61을 기록해 우승했다.

이로써 시프린은 FIS 월드컵 알파인 여자부 최다승 신기록인 83승 고지에 올랐다. 종전 기록은 본이 갖고 있던 82승이다.

시프린은 지난 8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대회전에서 82승을 달성했고, 이후 네 차례 레이스에 나섰지만 승수를 보태지 못했다.

이번 83승에 제도전한 시프린은 1차 시기를 58초 72에 달려 출전 선수 57명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2차 시기도 가장 빠른 1분 01초 89에 끊어 2위 라라 구트 베라미(스위스)의 1, 2차 시기 합계 2분 01초 06을 0.45초 차로 제쳤다.

시프린은 남자부 최다 우승 기록인 잉에마르스

텐마르크(은퇴·스웨덴)의 86승도 이번 시즌 안에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시프린의 주 종목인 회전, 대회전 경기가 7차례 남았다.

특히 본은 82승째를 34세에 달성했고, 스텐마르크는 33세였던 1989년에 86승째를 거뒀기 때문에 아직 20대인 시프린은 사상 최초의 알파인 월드컵 100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2013년 12월에 월드컵 첫 승을 따낸 시프린은 자신의 11번째 시즌에서 83승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에만 9승을 거두고, 자신의 한 시즌 최다승은 2018-2019시즌의 17승이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회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평창에서는 알파인 복합 은메달도 추가했다.

지난해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기대됐으나 예상 밖의 '노메달'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25일 이탈리아 크론플라츠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 알파인 스키 월드컵 여자 대회전에서 우승해 통산 83승을 기록하며 린지 본의 82승을 뛰어넘은 미케일라 시프린(가운데)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햄스트링 부상에 연전연승 조코비치, 가짜 부상 논란에 "내가 입증할 이유 없다" 반박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650만 호주달러·약 662억6000만원) 남자 단식 통산 10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사진)가 '가짜 부상'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5일 "부상이 진짜라고 입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조코비치의 말을 보도했다.

호주오픈에서 진행 중인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에서 8강에 올라 있는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뛰고 있다.

왼쪽 다리 뒷부분에 붕대를 감고 출전 중인 조코비치는 경기 도중 긴 팔리를 벌이거나, 다소 무리한 동작을 한 뒤에는 험겨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도 8강까지 승승장구하며, 특히 호주오픈에서는 2019년부터 25연승 행진을 이어가자 '가짜 부상' 논란이 불거졌다.

또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다.

2021년 호주오픈에서는 복근 부상이 있다고 했지만 3회전에서 테일러 프리츠(미국)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두고, 2015년 앤디 머리(영국)와 결승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프리츠와 경기 때는 1, 2세트를 먼저 조코비치가 따낸 뒤 복근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3, 4세트를 내줬지만 5세트 들어 갑자기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해 6-2로 이긴 뒤 결국 우승까지 했다.

일부에서는 조코비치가 부상을 내세워 상대의 집중력을 흐트러트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전 16강전에서도 엘릭스 디미노어(호주)를 3-0(6-2 6-1 6-2)으로 완파한 조코비치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입증할 것이 없다"며 "다른 선수들이 부상일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부상일 때는 '가짜'라고 하니 흥미롭다"고 '가짜 부상'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나는 MRI 검사 결과도 받은 것이 있다"며 "2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듣기 부여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준우승 전문가' 강민구 마침내 우승

### 5번 도전 끝 당구 PBA 정상 등극

준우승만 네 번 하며 '준우승 전문가'로 불리는 강민구(39·블루원리조트)가 5번의 도전 끝에 처음으로 프로당구 PBA 투어 정상에 올랐다.

강민구는 24일 밤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웰빙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전에서 응고 딘 나이(베트남·SK렌터카)를 세트 점수 4-2(14-15 15-6 2-15 15-7 15-9 15-5)로 제압했다.

이로써 강민구는 PBA 투어 입문 4시즌 만에 처음으로 삼금 1억원과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강민구는 프로당구 출범 이후 첫 투어였던 PBA 파나소닉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2020-2021시즌까지 2등만 네 번하며 강호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한동안 부침을 겪으며 710일 만에 결승 무대를 밟았고, 다섯 번째 도전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강민구에게 첫 트로피를 안긴 건 자신의 장기간 뱅크샷이었다.

결승전에서 강민구는 한 번에 2점짜리인 뱅크샷을 무려 16개나 성공했다.

결승전에서 얻은 76점 가운데 32점(42.1%)을 뱅크샷으로 채웠다.

경기 후 강민구는 "우승 직후 소름이 돋았다. 등



우승 트로피에 입맞추는 강민구. /연합뉴스

아래부터 짜릿함이 올라왔다"며 "그간 부진으로 가슴에 맺힌 한을 분출하는 의미였다"고 감동을 전했다.

특히 그는 "(연이은) 준우승보다는 최근 2년 동안 성적을 내지 못해서 스스로 용인이 잘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제 프로당구 무대에 뛰어난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 훈장을 단 강민구는 "남은 대회인 8차 투어와 포스트시즌도 잘 준비하고, 월드컵피어십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러시아, 유럽축구연맹 찾아갔지만...국제무대 복귀 어려울 듯

새해에도 당분간 러시아축구협회(RFU)의 국제무대 출전을 막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RFU 수뇌부가 UE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니옹을 찾아 자국 프로축구팀, 대표팀의 국제무대 복귀에 대해 논의했다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은 전했다.

그러나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UEFA는 당장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전을 조건으로 걸고 있어서다.

회담을 마친 알렉산드르 알라예프 RFU 부회장은 취재진에 관련 답변을 피했고, UEFA 측은 언론에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RFU도 성명을 통해 "양측은 연락을 유지하면

서 추가 협의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 다음 회담은 2월 중 열릴 것"이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전쟁 중에는 UEFA가 러시아 구단들의(국제무대) 복귀를 허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축구계의 상황을 지켜보는 UEFA가 산하 국제대회에 러시아가 돌아올 경우를 따져보고 있지만, 이 역시 종전을 전제한 준비라고 이 매체는 해설했다.

러시아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등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2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상진니
3관	아바타: 물의 길
4관	유령
5관	메간
6관	교섭, 정화신은 고장이: 끝내주는 모험
9관	메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돌핀보이
7관	씨네커플 영웅, 스위치
8관	씨네커플 유령, 천룡팔부: 교봉전, 극장판 파워레인저 캠프포스: 지구를 위한 싸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1-18(수) ~ 2023-01-29(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신년음악회**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신년음악회**  
 일시: 2023-02-03(금) 19:3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5